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처리 제대로 될까

4당 체제 첫 시험무대 ... 18세 선거권 등 곳곳 암초

본격 대선전 중점 법안 제각각 합의 처리 될지 미지수

‘4당 체제’ 국회의 사실상 첫 시험 무대인 2월 임시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여부와 중점 입법 사항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원만한 의사일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우선,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 더불어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또 오는 23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일정 확정도 지연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또 4당이 2월 국회에서 내세우는 중점 법안도 제각각이어서 합의 처리가 난망하다. 특히 수적 우위를 지닌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소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서 일찌감치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해놓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달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이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중 선거 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들은 여대야소(與大野小)였던 19대 국회 때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법안별로 여당 또는 야당과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이중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화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할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어느 당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새누리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문체부 타당성 심의 통과

기재부 최종 결정 남아

40억중 12억 지원 기대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핵심사업인 국제수목화 비엔날레가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행사 심사위원회는 최근 수목화 비엔날레 행사 개최 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의·의결했다. 오는 7월까지 진행 예정인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제행사 최종 승인된다.

국가행사라는 상징성은 물론 정부와 협력 관계, 국비 지원 등을 고려하면 국제행사 승인은 필수 과제이다.

전남도는 예상 사업비 40억원 가운데 30%인 12억원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

논리개발과 함께 총감독 선정, 전시 구상 등을 거쳐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목화 비엔날레는 내년 10월 목포 갖바위권을 중심으로 진도 운림산방권, 목포 유달산권 등에서 ‘정충동’을 콘셉트로 열릴 예정이다. 문화예술회관·옥공예 전시관·남동기념관 등이 들어선 갖바위권 문화예술타운에서는 수목화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한다.

운림산방 일대에서는 수목화의 과거, 유달산권에서는 현재를 소개하는 방식의 전시가 구상 중이다.

전남도는 또 오는 10월 2~31일(잡정) 갖바위권 등 3개 권역에서 사전 행사 격으로 국제수목화 교류전을 열기로 했으며, 남·북한,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작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작가와 작품 섭외에 들어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위 구성키로

문태환 시의원 발의

광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광주시의회에 구성된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2)의원은 1일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광주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에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18년 6월말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주시와 함께 군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와 분석을 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전 후보지와 군공항 이전 추진 해당 지역 지방의회와의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외 함께 군공항 이전을 위한 조직 및 재원 조달 방안, 선진사례 수집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 이후 종전 부지 개발 지원방안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나선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고령화·인구감소 농촌에 인력 지원

올해부터 지역농협 17개소에 인력센터 본격 운영

일자리 참여 신청 접수 ...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

전남도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농협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농촌 일자리에 참여할 도민을 모집해 일손이 필요한 곳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1차 모집에 나설 농촌인력지원센터로 확정된 지역농협은 17개소다. 농촌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농협은 여수 여천농협, 순천 순천농협, 광양 다압농협, 고흥 풍양농협, 장흥 천관농협, 영암 삼호농협과 남주농협, 무안 무안농협, 영광 굴비골농협, 장성

장성농협과 삼서농협, 함평 함평농협, 해남 황산농협, 진도 서진도농협, 신안 압해농협과 복신안농협, 신안농협이다.

농촌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최초 신청 시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전담 직원과 상담 후 희망 근로지역·작목·임금 수준·작업 기간·차량 필요 여부 등을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일손 필요 농업인과 연계해준다. 구직자들은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낼 필

요가 없고, 농작업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받는다.

일자리 참여자의 주거지와 지역을 달리 할 경우 지역 간 시외버스 요금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며칠 동안 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의 경우 숙박비도 지원받는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손 부족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농업인과 구직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이 농촌인력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촌인력지원센터 21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4개소의 지역농협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해 전남 수산물 수출액

30% 늘어 1억8700만달러

지난해 전남도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액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수산물 수출액은 1억8700만 달러로 2015년(1억4400만 달러)보다 4300만 달러(30%) 늘었다.

전국 수산물 수출액은 21억2700만 달러로 전년(19억2500만 달러)보다 11%가량 증가했다.

전남 주요 품목별 수출액은 김(6800만 달러), 전복(5200만 달러), 톳(2600만 달러), 미역(1600만 달러) 등으로, 전복 55%를 시작으로 김 28%, 미역 24%, 톳 16% 등이 상승했다.

전남도는 전복, 꼬막, 새우, 해삼, 바다송어 등 수출이 유망한 5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친환경 농식품 비싸서 구매 꺼린다”

농식품부 조사 75% 응답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친환경 농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비싼 가격이 꼽혔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만 25세 이상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복수응답 가능)는 친환경 농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을 들었다.

이어 ‘일반 농산물과 품질의 차이가 없어서’(25.8%),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3.5%),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3.4%), ‘구입하려는 친환경 농산물

이 때대에 없어서’(10.5%) 등의 순이었다.

친환경 농식품을 구매한 이유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81.2%)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65.3%), ‘친환경 농산물을 신뢰해서’(27.3%), ‘환경보호를 위해서’(20.4%) 등이 뒤를 이었다.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인지는 90.4%로, 만 60세 이상(95%)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전남지역 자치단체와 친환경농가에 유익한 내용이 많아 유심히 들여다볼만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